

管中이던 再納하지 않은 一切의 裝嚴具를 慶州博物館으로 移管 保存케 하였으며 舍利瓶도 一月二十九日 慶州博物館에 引繼 保管中이다 (引繼當時約 四十片으로 完全 復原은 不可能한 것으로 알려졌다).

— 第八卷 第三號 通卷八十號 —

益山五金山出土 多鈕細文鏡과 細形銅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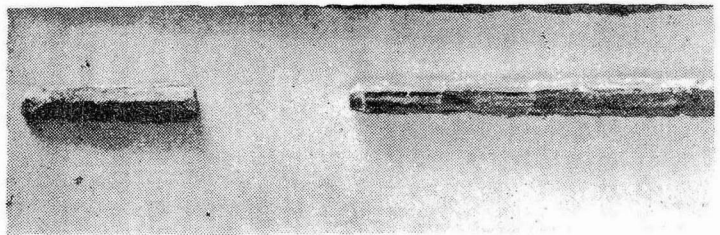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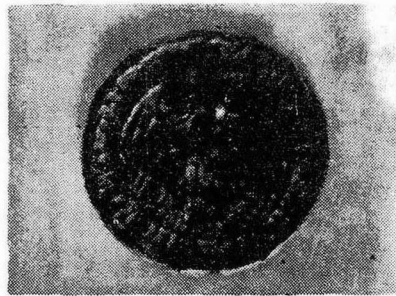
金 元 龍

지난 二月 서울신문 學術部 黃記者의 好意로 益山中學校가 所藏하고 있다는 多鈕細文鏡 一面의 寫眞을 보내 되어 二月 十四日 現地에 내려가서 現物을 보았다. 益山中學校에는 이밖에 도 許多한 遺物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同校歷史敎師 宋祥圭先生이 蒐集한 것이라고 한다. 그 속에는 問題의 多鈕細文鏡 以外에도 細形銅劍 等 몇몇 銅製品이 있어 이 地方出土의 遺物로서 모두 貴重한 資料였으나 그 全般의 因 것에 關해서 따로 報告文을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于先 多鈕細文鏡과 또 그와 同一地點에서 나왔다는 細形銅劍만을 寫眞으로 紹介할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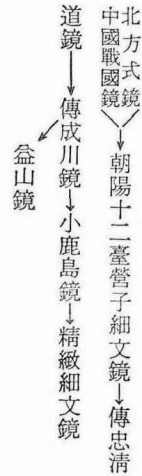
細文鏡이 나온 五金山은 益山군 바로 西쪽의 標高五〇m 쯤 되는 山이며 거울은 그 南쪽 斜面路面에서 約二〇m 쯤 高所에서 發見되었다. 이 地帶는 開墾되어 논으로 되어 있는데 昨年 여름 益山中學生 하나가 畵해쳐진 畵에서 畵을 破片 하나를 拾得하여 宋先生에게 傳하여 宋先生이 現地로 가서 附近을 精査하여 나머지 破片들을 全部 採集完形을 復原한 것이다. 宋先生에 依하면 畵을 出土地는 當時 아무런 다른 構造나 遺物 같은 것이 없고 그저 논쪽에 不過하였다고 하는데 그 뒤 이 地點附近에서 完形 細形銅劍과 破片二개가 다시 學生의 손에 依해 採集되었다. (完形銅劍은 全州博物館에 移置되어 있어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이 遺蹟은 耕作에 依해 破壞되어 이제는 아무 흔적이 없으나 元來는 墳墓였다고 믿어진다. 細文鏡은 直徑九cm의 比較的 小形이며 三角緣인 緣部의 두께가 四mm、身部의 두께는 三mm 쯤 된다. 至今 全面에 黑色 녹이 덮여 있지만 破片斷

面을 보면 內外表面에 各各 〇・五mm 정도 의 窟膜이 있고 그 속 卽 中心壁은 白色에 가까운 白銅質임을 알 수 있다. 鏡面은 거의 扁平面이고 鏡背는 內外二區로 나누어 外區는 平行 放射線狀短線文帶로 하고 넓은 內區는 秩序없게 아무렇게나 配置된 三角形文들 內部를 亦是 平行線으로써 매우 고 있다. 그리고 두개의 고리와 같은 鈕이 內區와 外區를 區劃하는 線가 가까이 나

란이 配置되어 있다. 이 文樣은 一見해서 粗文式多鈕鏡이며 特히 平南成川出土라고 傳해지는 粗文鏡(古文化綜鑑 二一七號, 直徑 井 一一・四cm)과 同式인 것을 알 수 있으나 細部에 있어서 成川鏡은 緣이 더 높아 匕面으로 되고 外區의 幅이 훨씬 좁을 뿐 아니라 三角形의 輪廓가 二重이고 또 그것대로 整頓되어 있으며 益山鏡보다 더 오리지날리티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成川鏡은 古文化綜鑑 二一六號의 傳忠南地方出土라는 粗文多鈕鏡과 比할 때 文樣은 整頓되지만 忠清道鏡이 더 古式傳統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 보이는 雷光같은 지그자그文이 戰國鏡의 「서로 일킨 T文」을 잘못 模倣한 것임은 이미 筆者가 指摘한 바와 같다(拙稿「十



이렇게 볼때 우리 益山鏡은 形式 發展上 粗文에서 精緻한 細文鏡에의 發展過渡段階에 있다고 하겠으면서 一種의 傍系 墮落形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圖示하면 다음처럼 될 것이다.



한편 扶餘 草村面 蓮花里出土의 細文鏡(金載元「扶餘、慶州、燕岐出土 銅製遺物」震檀學報二五七合號)도 精緻文前期의 發展式粗文鏡이었으며 이러한 湖南一帶의 細文鏡들은 앞으로 새로운 角度에서 考察해 볼 必要를 느끼는 바이다.

한편 細形銅劍은 白綠色으로 녹이 너무 쓸어서 刃部는 兩側이 모두 떨어져 없어지고 劍稜部만 남아 있으나 그것도 二折되고 缺失된 部分이 있어 正確한 길이는 알 수 없으나 大略三〇cm 가까운 全長을 가졌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現存하는 二片의 길이는 各各十四·五cm 六·五cm 이다. 寫眞에서 보다시피 劍稜下部에는 細形銅劍特有的 패어진 部分이 있으며 劍鋒部가 가어서는 血溝末端보다 劍鋒이 훨씬 길게 뻗고 있으며 刃部가 몹시 좁은 典型的인 細形銅劍이라고 생각된다. 宋先生말에 依하면 全州博物館에 移藏된 完形品도 같은 形式이라고 한다.

益山中學에는 이밖에 劍柄, 銅劍 등 數點이 있으며 이地域 初出의 如斯資料로서 모두 貴重하며 西海岸地方으로 퍼져 내려가는 初期鐵器文化의 樣相에 대해서 많은 資料를 提供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全南地方 忠南地方의 이러한 發見品の 增加가 當然히 豫想되며 그에 따라서 從來 看過되었던 이 地方古代文化의 여러 問題點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追記) 原稿作成後 全州博物館長 全榮來先生의 厚意로 그銅劍의 寫眞과 實測圖를 얻을 수 있었다. 그에 依하면 全長三五·二cm의 亦是 劍鋒部가 긴銅劍이며 全面에 白綠色 녹이 甚하게 붙어 있다.

安東 琴韶洞 塔像

秦 弘 燮

安東郡 臨河面 琴韶洞에 塔像이 있다는 同洞 林致大氏의 通報에 依하여 現場에 出張 調査한 바 있었다. 安東에서 吉安行 卞스르 琴韶에서 下車하면 마을 한 복판에 民家の 담을 사이에 두고 南에 石塔 北에 石佛이 있다.

石佛

石造如來坐像으로 破損이 甚하다. 雨露를 막기 爲한 簡單한 施設이 있으나 그것도 老朽가 甚하다. 그래도 破片을 한 곳에 모아 놓은 것을 보면 民家內에 들면서부터는 큰 損傷은 없었던 듯하다. 臺座는 八角의 通式으로서 地臺石은 地下에 있어 자세한 細部를 알 수 없고 下臺는 複瓣八葉의 伏蓮으로 밑의 各側面에는 眼象이 一座씩 있고 위에는 角弧의 물딩이 있어 八角 中臺石을 받고 있다. 中臺石 各面에도 眼象이 一座씩 있으며 柱形은 省略되었다. 上臺에는 仰蓮이 있으나 破損이 甚해서 完存하는 面이 하나도 없고 下端의 一部에 남은 彫刻으로 보아 花瓣內에 花文이 있는 듯하다.

佛身은 頭部 兩腕等이 切斷되었고 相好는 磨損이 甚해서 알아볼 수 없을 程度로서 그야말로 滿身瘡痍이다. 남은 部分으로 미루어 相好는 제법 整頓된 輪廓을 보이고 右肩偏袒에 降魔觸地의 手印을 結하고 있다. 彫刻手法는 제법 부드러우며 背後에는 彫刻이 比較的 잘 남아 있어서 左側 어깨에서 흘러 내린 衣紋이 제법 뚜렷하다.

臺座高七八·五cm 身高六五cm 頭高三五cm 膝幅七五cm

石塔

石塔 亦是 破損이 甚하여 部材가 散亂되었으며 特히 上層基壇 面石이 밖으로 떨어져서 積心石이 흘러졌고 그 안에 初層塔身이 落下되었고 第